

# DGB대구은행 오십년사

1967-2017

## DGB금융그룹 계열회사 및 협력회사

---

### 축사·회사소개

DGB생명 

DGB캐피탈 

DGB자산운용 

DGB유펜이 

DGB신용정보 

DGB데이터시스템 

(주)대경티엠에스



| DGB생명 회사소개

고객을 감동시켜  
고객에게 주는 가치를  
극대화하는  
신뢰받는 Life Partner로  
성장해 나가겠습니다

반세기라는 긴 세월 동안 지역경제발전을 이끌어 온 DGB대구은행의 창립 50주년을 축하드립니다. DGB대구은행은 지난 1967년 최초의 지방은행으로 탄생해 지역 금융산업의 새로운 장을 연 이래 오늘에 이르기까지 지역경제 발전의 견인차 역할은 물론 대한민국 금융사에 커다란 발자취를 남기며 성장해왔습니다.

지난 50년간 지역 대표은행으로 중추적인 역할을 해온 DGB대구은행은 금융산업의 새로운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해 지역금융 선진화에 앞장서 왔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역경에도 불구하고 DGB대구은행이 지역경제의 굳건한 버팀목으로 빛나는 성과를 이뤄올 수 있었던 것은 위기의 순간일수록 진가를 발휘하는 DGB의 강인한 혁신 DNA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DGB대구은행이 지난 50년간 쌓아온 신뢰와 믿음을 바탕으로 앞으로 100년의 새로운 역사를 써나감에 지방계 최고의 은행을 넘어 대한민국을 대표하고, 더 나아가 글로벌 리딩 은행으로 도약해 나가기를 기원합니다.

DGB생명도 DGB대구은행의 든든한 동반자로서 미래금융산업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17년 11월  
DGB생명 대표이사 오익환

1988년 2월 22일 설립된 DGB생명보험은 2015년 1월 29일 DGB금융지주의 자회사로 편입됐으며, 보험업법에 따른 생명보험업, 제3보험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

DGB생명보험은 2017년 6월 말 기준 총자산 5조 7510억 원, 자본총계 2799억 원 등 안정적인 재무구조를 바탕으로 등록설계사 772명, 영업점 42개소(DM지점 제외), 대리점 56개, 금융기관보험대리점 11개 등 전국에 있는 다변화된 영업채널을 통해 지속적인 성장을 이어가고 있다.

보험의 목적은 불확실한 미래의 부채에 대비해 확실한 보장자산을 준비하는 것이다. DGB생명보험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직면하는 경제적 위험을 가족보장, 생활보장, 의료보장, 목적보장, 은퇴보장의 5대 보장자산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맞춤형 보장분석컨설팅을 통한 보험상품을 제공하고 있으며, 항상 고객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고객감동전략을 바탕으로 고객이 마련한 보장자산에 대한 확신과 가치를 전달하기 위해 땀구슬(Thank-you call)을 실시해 완전판매를 이루는 정도영업을 실천하고 있다.

2015년 1월 출범 이후 DGB생명보험은 그룹의 지역기반인 대구경북지역의 영업망 확대를 추진하고 보장성보험과 변액보험 매출을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상품과 마케팅, 서비스의 차별화를 기하고 보험 본연의 이익인 위험률차손익을 개선해 중장기 손익 기반 확보의 전기를 마련했다. 또한 불완전판매와 민원 등 영업건전성을 크게 개선하는 등 생명보험회사의 근본적인 경쟁력을 착실히 다져왔다.

특히 전속채널은 정예화·효율화에 중점을 두고, 제휴채널은 우량 GA를 선별적으로 제휴하는 동시에 차별화된 상품과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해 질적 성장의 기틀을 확고히 하면서 영업조직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DGB생명보험은 가치 중심의 내실성장을 지속하며 보험 본연의 가치와 고객감동을 제공함으로써 고객의 신뢰받는 Life Partner로 성장해 나가고 있다.



| DGB캐피탈 회사소개

고객 여러분과  
더불어 성장하는  
DGB캐피탈이  
되겠습니다

DGB금융그룹의 주력 계열사이자 지역 대표은행인 우리 DGB대구은행이 창립 50주년을 맞이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1967년 창립 이래 숱한 고난과 위기 속에서도 탄탄한 경영의 기틀을 마련하고 글로벌 기업으로 발돋움하기까지 DGB대구은행이 걸어온 길은 대한민국의 살아있는 역사이자 지역의 자랑스러운 쾌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날 DGB대구은행의 놀라운 경영성과는 전 임직원들이 ‘꿈과 풍요로움을 지역과 함께’ 라는 경영 이념을 가지고 은행발전을 위해 열정과 땀을 오롯이 쏟은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반세기 동안 지역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이었던 DGB대구은행이 다가오는 미래 100년의 세월 속에서도 지역을 뛰어 넘는 초일류은행으로 성장, 발전해 나가기를 기원합니다. 저희 DGB캐피탈도 DGB대구은행과 함께 미래를 열어가는 성실한 동반자가 되어 새로운 신화의 역사에 동참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2017년 11월

DGB캐피탈 대표이사 이재영

DGB캐피탈은 각종 기계, 장비에 대한 리스/할부금융, 자동차에 대한 오토금융 그리고 기업금융과 개인금융 등 전문화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종합 여신전문금융회사이다.

2012년 1월 DGB금융그룹의 새로운 가족이 된 이후 5년 만에 1100% 자산성장이라는 놀라운 성과를 시현해 현재 자산 2조 4000억 원의 우량한 여신전문금융회사로 발돋움했다. 이는 2015년 10월, ‘Triple5’라는 중장기 경영목표를 세우고 조직 전반에 걸쳐 성공적인 체질 개선을 이뤘기 때문이다. 특히 기계, 장비금융 위주로 편중돼 있던 자산 포트폴리오를 오토금융과 기업금융, 개인금융 확대로 다변화시킨 전략이 유효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DGB캐피탈은 2016년에 자산 1조 8400억 원과 순이익 146억 원이라는 창사 이래 최대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었다.

또한 2017년, 5년 내 당기순이익의 500억 원, 업권 내 실질적 5위에 진입해 Top-Tier로 도약하고자 하는 비전을 토대로 중고차 오토금융과 개인신용대출을 중심으로 하는 리테일금융 성장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경기변동에 민감한 기계·장비금융, 기업금융과의 포트폴리오 효과를 극대화해 단순한 외형적인 성장뿐만 아니라 질적인 균형성장을 이루기 위한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더불어 라오스 KOLAO그룹과의 전략적 제휴를 통해 그룹 최초로 ‘DLLC’라는 해외법인을 설립했다. 현지 자동차 금융시장에 진출해 영업 개시 8개월 만에 영업자산 400억 원을 달성하는 등 성공적인 영업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DGB캐피탈은 ‘Do Global Best’라는 DGB금융그룹 슬로건에 발맞춰 세계로 뻗어나가는 데에 교두보 역할을 하는 등 그룹을 대표하는 계열사로 성장하고 있다.



| DGB자산운용 회사소개

믿음과 신뢰로  
더 큰 가치를 주는  
DGB자산운용이  
되겠습니다

꿈과 풍요로움을 지역과 함께 한 DGB대구은행의 창립 5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지난 50년 역사에 기여한 모든 분들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DGB대구은행은 1967년 지역발전의 열망을 담아 대한민국 최초의 지방은행으로 출범했으며 석유파동, 경제불황, 외환위기 등 힘든 시련의 역사를 넘어 변화와 혁신을 지속하며, 지난 50년을 지역민의 소중한 꿈을 위해 달려왔습니다. 국내은행 최고수준의 재무비율, 지역민이 애용하고 신뢰받는 금융 동반자로서 최고의 은행으로 성장했으며 이는 모든 임직원들의 도전과 열정으로 이룩한 성과이기에 아낌없는 찬사를 보냅니다.

지난 50년 도전과 열정의 DGB대구은행이 100년 초일류은행을 향한 비전을 품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지역은행으로서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가길 바라며, 힘찬 발걸음에 저희 DGB자산운용도 동참하도록 하겠습니다.

DGB대구은행 창립 50주년을 다시 한번 축하드리며 임직원과 가족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2017년 11월

DGB자산운용 대표이사 이윤규

DGB자산운용은 2000년 3월 투자자문회사로 출발해 2008년 8월 운용사로 전환했으며, 2016년 10월 DGB금융그룹의 일곱 번째 자회사로 편입됐다.

2017년 6월 말 기준, 국내 대형 연기금과 기관투자가 고객을 기반으로 9조 5000억 원의 자산을 운용하고 있으며, 자기 자본 296억 원, 임직원 35명으로 업계 내 견실하고 알찬 자산운용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DGB자산운용은 DGB금융그룹 도약의 핵심이 되는 계열사가 될 수 있도록 전 임직원이 혼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2020년 초우량 종합자산운용사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경영전략을 수립해 실천하고 있다.

첫째, 수탁고의 지속적인 확대를 통한 안정적인 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우수한 운용수익율을 기반으로 주식과 채권 중심의 전통 자산과 대체투자 수탁고를 증가시켜 2020년 12조 원의 수탁고 목표를 조기 달성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둘째, 수익성 중심으로 고객과 상품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해 나가고자 한다. 기존의 전통자산, 사모펀드 중심에서 대체투자, 공모펀드의 비중을 확대해 2020년 순이익 50억 원의 목표를 조기 달성하고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셋째, 계열사 간 시너지를 통해 조기에 영업기반을 확대하고자 한다. 그룹차원의 운용역량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 종합금융그룹의 한 축을 담당하는 종합 자산운용사의 역할을 다할 것이다.

다양한 투자기법과 새로운 금융투자상품들이 개발되는 요즘 자산운용시장은 비약적으로 확대 발전하고 있으며 자산운용업은 국내외 자본시장 성장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DGB자산운용은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 부응해 그동안 쌓아온 노하우와 고객 성향에 맞는 체계적인 투자시스템을 이용해 최적의 자산운용수단을 제공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 DGB유페이 회사소개

‘고객의 생활에  
편리한 파트너’로서  
고객과 가까운 이웃이  
되겠습니다

‘꿈과 풍요로움을 지역과 함께’라는 경영이념 아래 지역사랑을 실천해온 DGB대구은행이 창립 50주년을 맞이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1967년 산업근대화 시기에 우리나라 최초의 지방은행으로 출범한 DGB대구은행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의 노력을 다한 결과, 외환위기 등 여러 차례의 금융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오늘날 지역을 대표하는 초우량은행으로 성장 발전했습니다.

DGB대구은행이 창립 50주년에 이르기까지 보내주신 지역민의 사랑에 감사드리며, 열정으로 맘을 쏟아온 전·현직 임직원분께도 무한한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반세기 동안 지역의 경제를 지켜온 DGB대구은행이 섬김, 열정, 정직의 핵심가치를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경영을 실천하는 지역의 초일류은행이자 ‘Global Bank’로 끊임없이 성장 발전해 나가길 진심으로 기원하며, 저희 DGB유페이가 DGB대구은행이 새롭게 창조할 백년 역사에 동반자로 그룹 발전에 이바지 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2017년 11월  
DGB유페이 대표이사 박 동 관

1999년 설립된 DGB유페이는 버스, 도시철도 및 택시, 유료도로 등의 교통인프라를 기반으로 유통가맹점, 편의점, 출입 통제 및 보안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전자지불결제 시스템 인프라를 구축해 고객들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11년 DGB금융그룹의 가족이 된 DGB유페이는 ‘꿈과 풍요로움을 지역과 함께’라는 그룹 경영이념을 바탕으로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모바일 원패스를 출시하고, 원패스 카드의 서비스 지역을 수도권을 포함해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또한 편의점 및 커피전문점과 같은 유통분야와의 제휴를 통한 다양한 사용처 제공으로 교통카드를 이용하는 모든 시민들의 이용 편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DGB유페이는 ‘고객의 생활에 편리한 파트너’라는 경영이념을 바탕으로 교통에서 유통까지 일상생활 전반에 스며들어 고객의 편리한 생활을 만들어 나가는 기업을 지향하고 있으며, 다양한 방면의 지불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산사업자로 성장해나가고 있다.



| DGB신용정보 회사소개

소비자 신용회복을  
지원하는  
따뜻한 금융을  
실천하겠습니다

지역민들의 뜨거운 성원에 힘입어 최초의 지방은행으로 출발해, 이제는 국내 금융산업 발전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DGB금융그룹을 이끌어가는 주력 기업으로 성장한 DGB대구은행의 창립 5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지난 반세기를 돌이켜보면, 순탄치 않은 지역경제와 금융개방과 자유화에 따른 경쟁심화와 외환위기로 인해 수많은 시련을 맞이하기도 했지만, 모든 난관을 슬기롭게 극복하면서 창립 50주년이라는 금자탑을 쌓게 된 것은 참으로 뜻깊은 일인 동시에 크나큰 자량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모든 성과는 무엇보다도 지난 50년 동안 한마음 한뜻이 되어 헌신적으로 노력해 온 전 임직원들의 피나는 열정과 노력에 더해, 지역민들의 사랑이 있었기에 가능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지역경제의 든든한 동반자로서 성장해 온 DGB대구은행이 또 다른 반세기를 향해 힘차게 내딛는 첫 걸음은 참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새 시대에 부응하는 참신하고 획기적인 금융서비스 영역을 개척해 세계 초일류를 지향하는 '100년 은행'으로 도약하는 뜻깊은 출발점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DGB신용정보도 은행의 무궁한 발전에 늘 함께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2017년 11월

DGB신용정보 대표이사 정찬우

DGB신용정보는 2000년 7월 5일 대구신용정보로 설립해 2011년 5월 17일 DGB금융지주 계열사로 편입됐다. DGB신용정보는 DGB금융지주가 전액 출자한 계열사로서 금융기관 부실채권, 상거래채권, 민사채권 회수 및 신용조사, 민원대행 업무를 영위하기 위해 설립된 채권추심전문회사이다. 2017년 6월 말 기준 총자산 48억 원, 자기자본 45억 원, 부채 3억 원의 안정적인 재무구조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성장을 통해 신용사회 구현에 앞장서고 있다.

채권추심업무는 채권자로부터 금융기관 채권, 상거래 미수채권, 기업체 연체채권, 통신채권, 민사채권 등을 회수위임 받아 채무자의 소재파악 및 재산조사 등 철저한 데이터와 과학적인 기법을 이용해 채무독촉 및 변제금 수령을 대행하는 업무이다.

신용조사업무는 상거래가 이뤄지기 전에 상대방에 대한 신용정보를 수집·조사·분석해 신용 및 거래에 대한 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업무이다. 이로써 신용불량자에 대한 재산조사로 채권보전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민원대행업무는 고객의 요청사항에 대해 금융기관 및 일반기업체 등의 여신 취급 및 부실채권 사후관리에 필요한 제반 민원서류 발급대행 및 송달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이다. 2016년 6월 서류수령대행업무 겸업 승인을 통해 업계 최상의 서비스 기반을 구축해 나가고 있다.

신용정보회사는 현재 개인정보보호 강화 및 치열한 경쟁으로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으나, 계열사 시너지 확대와 대외 영업력 강화 등을 적극 추진해 회사의 경쟁력을 키워가고 있다. 더불어 소비자 신용회복을 지원하는 따뜻한 금융을 실천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회사가 되도록 전 임직원이 맡은 바 소임을 다하고 있다.



| DGB데이터시스템 회사소개

지역을 대표하는  
최고의 IT전문기업으로  
성장하겠습니다

국내 최초의 지방은행이자 DGB금융그룹의 대표 계열사인 DGB대구은행의 창립 5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 드립니다.

1967년 창립 이래 수많은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윤리경영과 도전정신을 바탕으로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가능경영을 실천하는 글로벌 기업으로 발돋움한 DGB대구은행은 지역을 넘어 대한민국의 큰 자랑이 아닐 수 없습니다.

DGB대구은행의 이러한 성과는 섬김, 열정, 정직의 핵심가치를 바탕으로 항상 고객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서 더 듣고, 더 큰 혜택을 드리고자 전 임직원이 협심 단결해 물심양면으로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50년을 향해 나아가는 DGB대구은행이 급변하는 금융시장 안에서도 변화에 대한 열정과 끊임없는 도전으로 100년 은행을 넘어 글로벌 100대 은행으로 성장, 발전하길 기원합니다. 저희 DGB데이터시스템도 글로벌 스탠다드뱅크로 도약하는 DGB대구은행의 든든한 동반자가 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2017년 11월

DGB데이터시스템 대표이사 이성룡

DGB금융그룹의 IT시너지 제고를 위해 2012년 4월 9일 설립된 DGB데이터시스템은 매년 매출액성장률 40% 이상을 달성하며 지속적인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또한 2017년 8월 말 기준 100명 이상의 IT전문인력을 보유해 DGB금융그룹의 다양한 IT Needs를 충족시키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다.

DGB데이터시스템은 DGB대구은행의 정보계 업무시스템(리스크관리, 성과관리 등)의 개발 및 운영업무를 시작으로 DGB생명 컴퓨터실 운영업무, 계열사 전산시스템 수탁 운영 및 유지보수업무, 계열사 IT자산 통합구매업무 등 계열사의 다양한 IT업무에 대한 아웃소싱을 통해 그룹의 IT시너지를 창출하고 있다.

또한 DGB금융지주 리스크관리시스템 구축, DGB캐피탈 모바일 홈페이지 시스템 구축, DGB금융지주 홈페이지 시스템 구축, 대구은행 IFRS9 시스템 구축 등 계열사의 업무시스템 구축 및 통합으로 계열사에서 업무를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그밖에 인터넷 회선 서비스, 망분리시스템, ASP(Application Service Provider) 서비스 등 그룹 내 공동 사용이 가능한 시스템 환경을 구축해 계열사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그룹의 IT TCO(Total Cost of Ownership) 절감에도 기여하고 있다. 사이버테러(해킹)에 대응 가능하고 내·외부 보안위협으로부터 고객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통합보안관제센터를 구축해 전 계열사에 24시간 365일 보안관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대외적으로는 대구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통합행정관리시스템 구축, 중소기업에 대한 성과평가시스템 구축, 30여 개 대학교에 등록금수납시스템 구축 및 유지보수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지역 IT전문기업으로서의 입지를 다지고 있다.

DGB데이터시스템은 'IT플랫폼을 위한 도약'이라는 경영목표 아래 지속적인 IT전문인력 양성과 IT경쟁력 강화로 DGB 금융그룹 IT전문 계열사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나아가 지역을 대표하는 최고의 IT전문기업으로 발돋움해 나갈 것이다.

## (주)대경티엠에스

| 축사



| (주)대경티엠에스 회사소개

고객의 행복을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는

(주)대경티엠에스가  
되겠습니다

‘꿈과 풍요로움을 지역과 함께’의 경영이념으로 세계 초우량 지역은행의 기틀을 충실히 다져온 DGB 대구은행의 창립 5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지난 반세기 동안 수없이 많은 시련과 어려움 속에서도 지속가능 경영을 실천해 글로벌 스탠다드 बैं크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던 것은 고객, 지역, 주주, 직원이 함께하는 행복한 금융으로의 노력과 열정이 있었기에 충분히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50년을 멈추지 않는 도전정신으로, ‘100년 은행을 지향하는 글로벌 100대 은행’의 비전을 기필코 달성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저희 (주)대경티엠에스도 DGB대구은행의 신뢰와 가치를 한껏 높일 수 있는 최고의 동반자, 충실한 서포터즈가 될 것입니다.

2017년 11월

(주)대경티엠에스 대표이사 **최민호**

(주)대경티엠에스는 대구·경북지역의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중추적 금융기관인 DGB대구은행이 2007년 5월 31일 지역민의 고용확대를 위해 설립한 회사이다.

대경티엠에스는 DGB대구은행, 대구시교육청, 신용보증기금, 대구대학교를 비롯해 지역에 소재한 많은 기관과 기업에서 인재파견, 시설경비, 시설물종합관리, 환경미화 등 종합적인 아웃소싱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2016년 연간 매출액 105억 원 달성, 26개 현장 도급, 파견인력 470여 명에 달하는 등 건실한 성장을 지속하고 있다.

대경티엠에스는 DGB대구은행의 굳건한 신뢰를 바탕으로 전문 아웃소싱을 통한 효율적인 경영과 지역민의 고용 확대를 통한 자질 향상에 전략적 파트너가 되고 있다. 앞으로도 지역 기업의 지속성장과 경쟁력 확보를 위해 진정한 동반자로 역할을 해나가겠다.